

동아시아학과 방혜빈 학생
(18학번, 3학년)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었어요”



비대면 강의의 포인트는 '절약'

동아시아학과 방혜빈 학생은 동서대 자체수업은 물론이고, 동서대와 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의 '광둥외대'와 일본 '리츠메이칸대' 수업도 함께 듣고 있다. 이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방혜빈 학생이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외국대학에서 진행되는 수업들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둥외대 수업은 중국의 가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진행되었고, 수업은 전부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어요. 리츠메이칸 수업으로는 논문 작성법이나 일본 문학, 사회 문제 토론 수업 등을 수강했는데, 실시간 강의도 있었고 동영상만 봐도 되는 수업도 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수업은 일본의 토론 수업이었어요!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낼 수 있었고, 덕분

에 비하면 강의의 최대 단점인 지루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등·하교 이동거리에 걸리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그 시간에 집에서 다른 과제를 하거나, 피곤하면 낮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는다. 같은 맥락으로 점심도 편한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식비도 해결해서 아주 좋았다고, 거기다 옷에 드는 비용과 에너지까지 아낄 수 있게 됐으며, 농담 아닌 농담도 건넨다.

“굳이 잠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아서, 잠옷 위에 매일 겹옷만 걸치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도 잠옷은 자주 바뀌었어요! 아마 저와 같은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맨날 같은 옷만 입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웃음) 코디하느라 신경 안 써도 되니 그것도 장점이면 장점이었어요.”

실습,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 주는 아쉬움

아이러니하게도 온라인 수업의 최대 장점인 '절약'은 최대 약점이 되기도 했다. 사람 간의 소통과 마주침의 기회도 아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대면 강의라도 노력, 의지 여하에 따라서 학업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습이나 팀플(팀프로젝트)의 경우 누락되는 일이 많이 생겼다.

“팀플이 제일 힘들었어요.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소통을 못했고, 직접 만나질 못하니 서로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져서 편하게 발언도 못했어요. 대면할 수 있었다면 밥도 함께 먹고, 대화도 하면서 친해져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렇게 사람들과 대면해, 대화할 기회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친해지고 자 하는 의욕도 떨어졌고,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져서 수업 듣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이에 방혜빈 학생은 다음 학기에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거나, 비대면이라도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

“조금 더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팀플 과제를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셨으면 해요. 학생들이 눈치 본다고 대답도, 의견도 안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업 중간 중간에 학생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재준비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대면 수업은 교수가 직접 수업자료를 준비해와 배부했지만 비대면 수업은 수업 자료를 다운받아 직접 인쇄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교재는 해외 배송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다.



온라인(ON)을 벗어난 오프라인(OFF) 타임!

온라인 수업으로 이전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더 생겼지만, 오히려 더 바빠졌다는 방혜빈 학생.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추가 전공 공부나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것에도 손을 대면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2020년 2학기 동안 집에서는 계속 전공이랑 한국사 공부를 했습니다! 다 마스터한 건 아니고 아직 공부 중인 것도 많아요.”

코로나19로 예정되어 있던 유학이 취소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공부들은 어느덧 방혜빈 학생에게는 또 다른 활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 잠시 미루었던 유학의 꿈은 반드시 다시 실현해 볼 생각이야.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게도 동서대의 글로벌 프로그램은 꼭 추천하고픈 오프라인 활동이다.

“저는 일단 어학전공이기도 하고, 유학을 다녀와 봤기 때문에, 코로나만 진정된다면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걸 추천하고 싶어요. 유학을 가면 해외에 대한 많은 편견도 깨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고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생기고 조금 진취적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은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울 때에도, 무언가에 도전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커리어로든 정신적으로든).”

와이파이 뱅뱅한 동아리방에서 실시간 일본어 회화 수업을 들었어요!



회의공간과 편의시설이 있는 스튜던트프라자에서 중국어정독수업 듣기!

